

매크로 변동성 속의 옥석 가리기: 금리 발작과 반도체 방어전

2026년 9월 2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및 투자 전략 리포트

DATE: 2026-09-02

REPORT TYPE: 미국장 브리핑

9월 2일 마켓 하이라이트: 충격과 방어의 교차점

FICC Shock

미 10년물
4.764% ↓
(19개월래 최고)



WTI 원유 ↑
\$87.69
(+\$2.62)



미-이란 충돌 재개 및
추가 공급 위협으로
인플레이션 공포 재점화

KOSPI Defense

KOSPI ↑
6,835.80
(+0.23%) 사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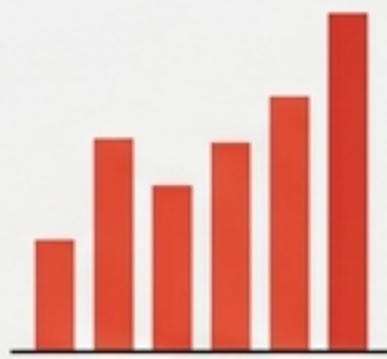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수출 호조 및
삼성전자·SK하이닉스 자사주
매입이 지수 하방 경직성 확보

Safe-Haven & AI Flows

비트코인 ↑
\$103,000
돌파



외화증권 ↑
467억 달러
순유입



매크로 불안 속에서도
글로벌 자금은 금, 비트코인 등
대체자산과 AI 섹터로 쏠림 심화

매크로 트리거: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쏘아 올린 인플레이션 공포



Step 1: The Trigger

지정학적 긴장

미국-이란 무력 충돌 재개
및 추가 공급 위협

Step 2: The Shock

원자재 시장 발작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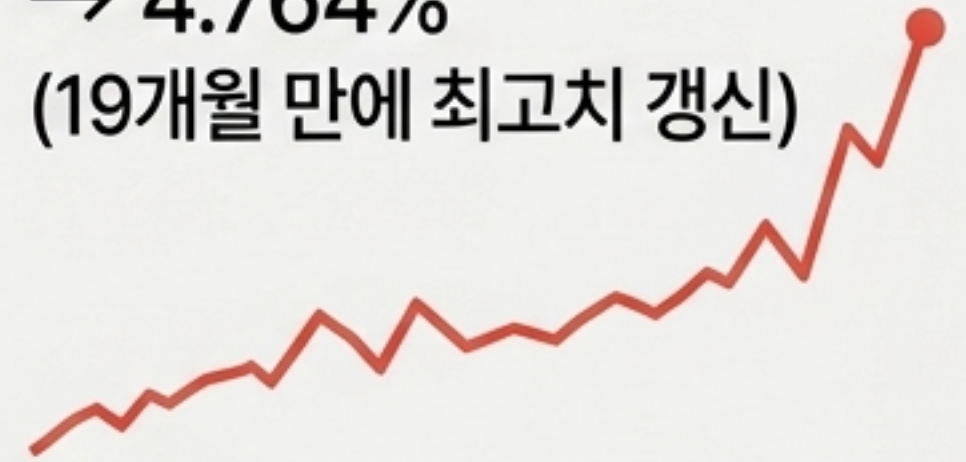
WTI 원유 2.62달러 급등
→ \$87.69 돌파
(OPEC 감산 연장 기대감 겹침)



Step 3: The Result

금리 발작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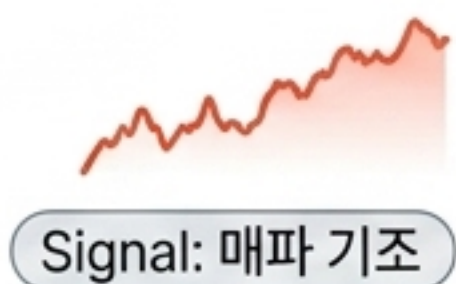
미 국채 10년물 5bp 폭등
→ 4.764%
(19개월 만에 최고치 갱신)



유가 상승이 연준(Fed)의 매파적 기초 장기화 우려를 자극하며
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(Risk-off) 심리 촉발

FICC 대시보드: 안전자산 선호와 인플레이션 헤지 뚜렷

[국채] 미 10년물
4.764% (+5bp)



[상품] WTI 원유
\$87.69 (+\$2.62)



[상품] 금 (XAU)
장중 +\$18



[대체] 비트코인
\$103,000 (+\$1,24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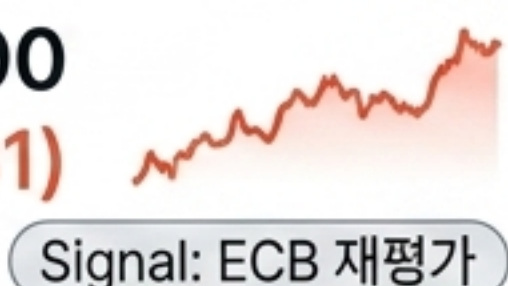
[외환] 달러인덱스



[외환] 원/달러
1,445.00원
1,445.00원 (-5.30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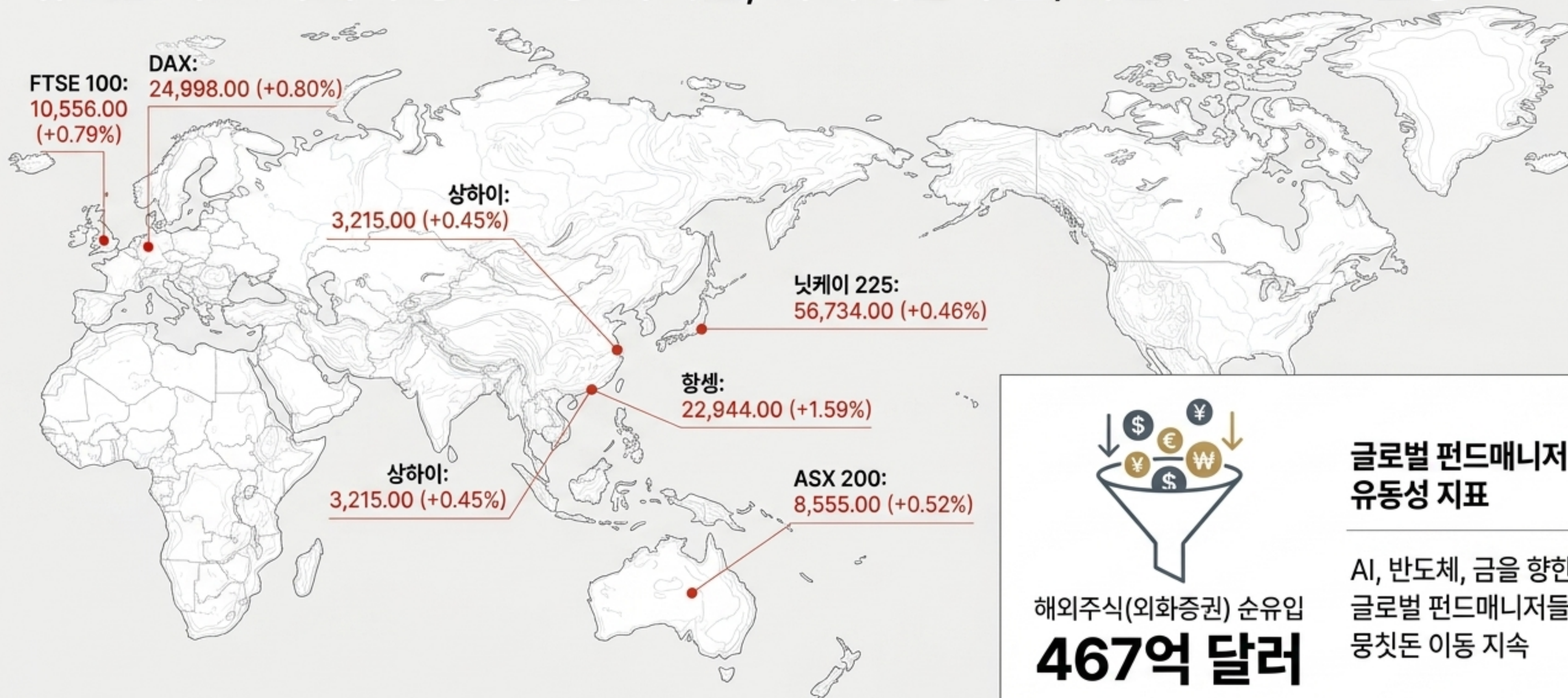
[외환] EUR/USD
1.1790
(+0.0031)



종합 진단: 달러 약세 대비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. 자금은 확고한 인플레 헤지(원유) 및 안전/대체 자산(금, 비트코인)으로 도피 중.

글로벌 증시 디커플링: 매크로 악재에도 멈추지 않는 유동성

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, 아시아는 수출/자원주 호조로 선방



글로벌 펀드매니저
유동성 지표

해외주식(외화증권) 순유입

467억 달러

AI, 반도체, 금을 향한
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
뭉치돈 이동 지속

미국 증시의 줄다리기: 금리 발작 vs AI 주도주의 방어

S&P 500: 7,686.14 (+0.00%) | NASDAQ: 26,370.89 (+0.00%)

거시 경제 악재
(Bearish)



개장 직후 나스닥 1.29% 하락 출발
국채 금리 19개월래 최고
WTI 유가 급등
중동궤 인플레이 공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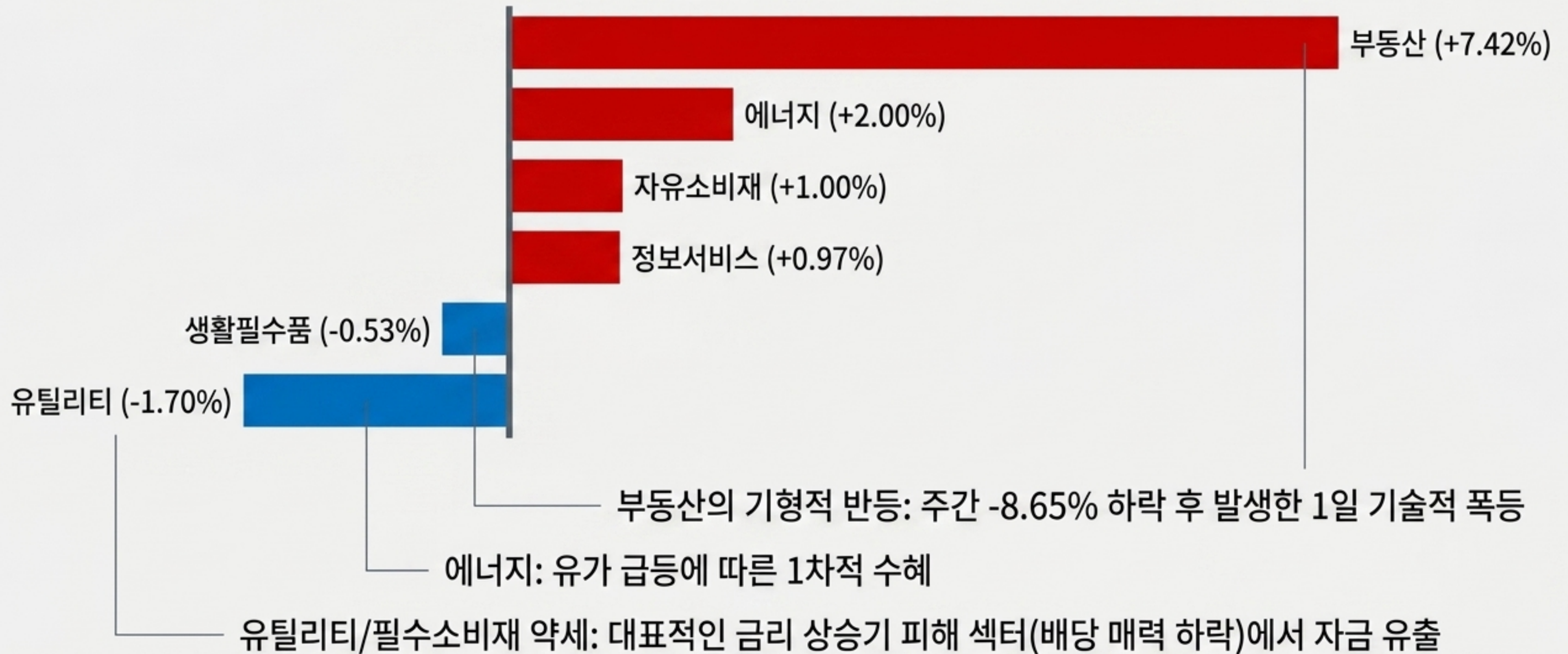
마이크로 호재
(Bullish)



하락폭을 모두 되돌린 저가 매수세
엔비디아 및 마이크론 강력한 반등
AI 수요 펀더멘털 건재

거시 경제의 압박을 기업 실적(AI/반도체)이 먹살 쥐고 방어하는 전형적인 숨 고르기 장세.

미 섹터별 수익률: 인플레이 수혜주와 금리 민감주의 명암



국내 증시 진단: KOSPI의 방어전과 KOSDAQ의 붕괴



KOSPI - The Defender

6,835.80 (+0.23%) | 6,800대 회복

수급:	기타법인 매수세 유입 (전약후강 패턴)
동력:	반도체 수출 호조, 삼성전자 & SK하이닉스 대규모 자사주 매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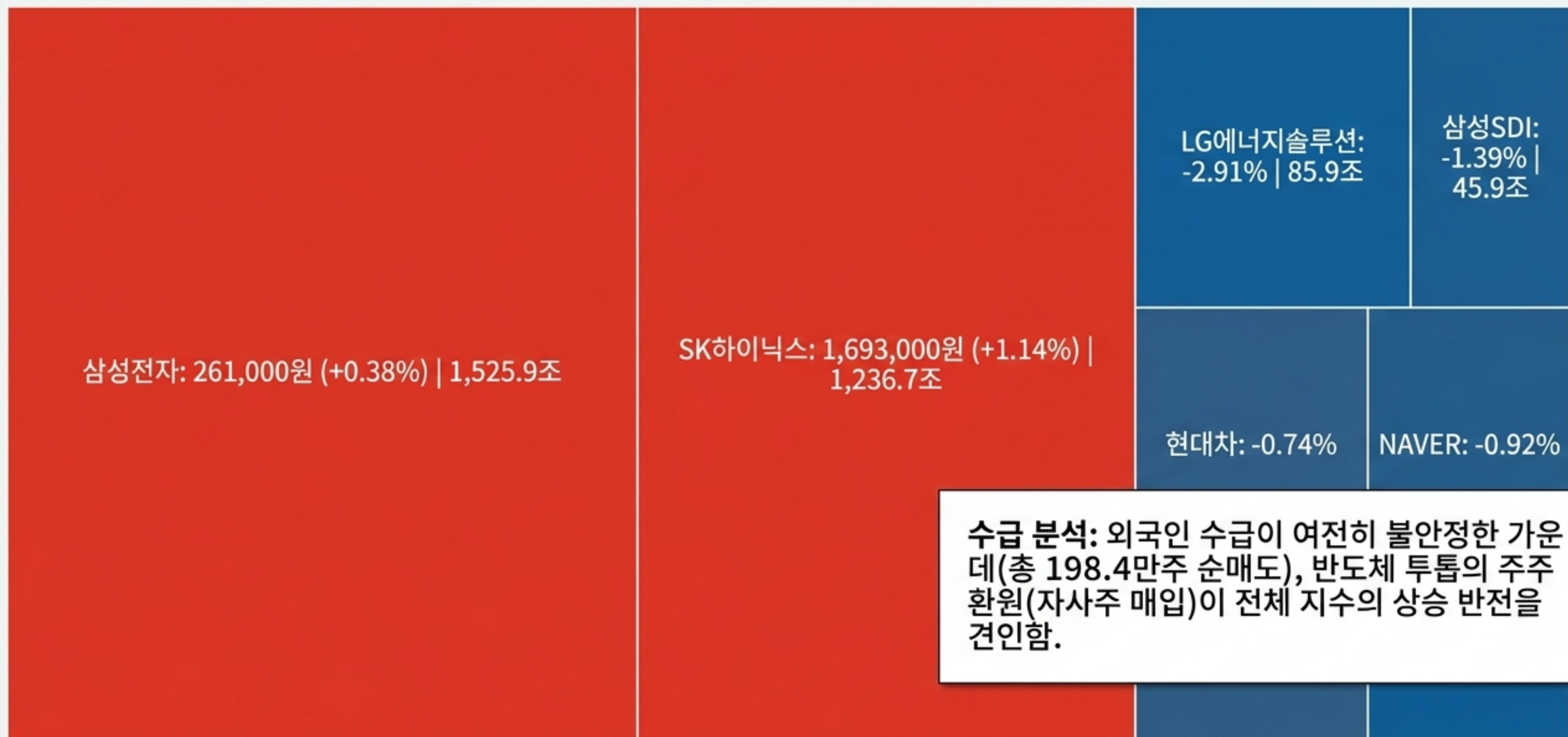
KOSDAQ - The Vulnerable

821.25 (-1.56%) | 이틀 연속 하락

수급:	외국인(70.8만주 매도) 및 기관 동반 폭탄 매도
리스크:	지정학적 리스크 직격탄. 개인 투자자 중심 레버리지 ETF -5% 급락 (인버스 3% 상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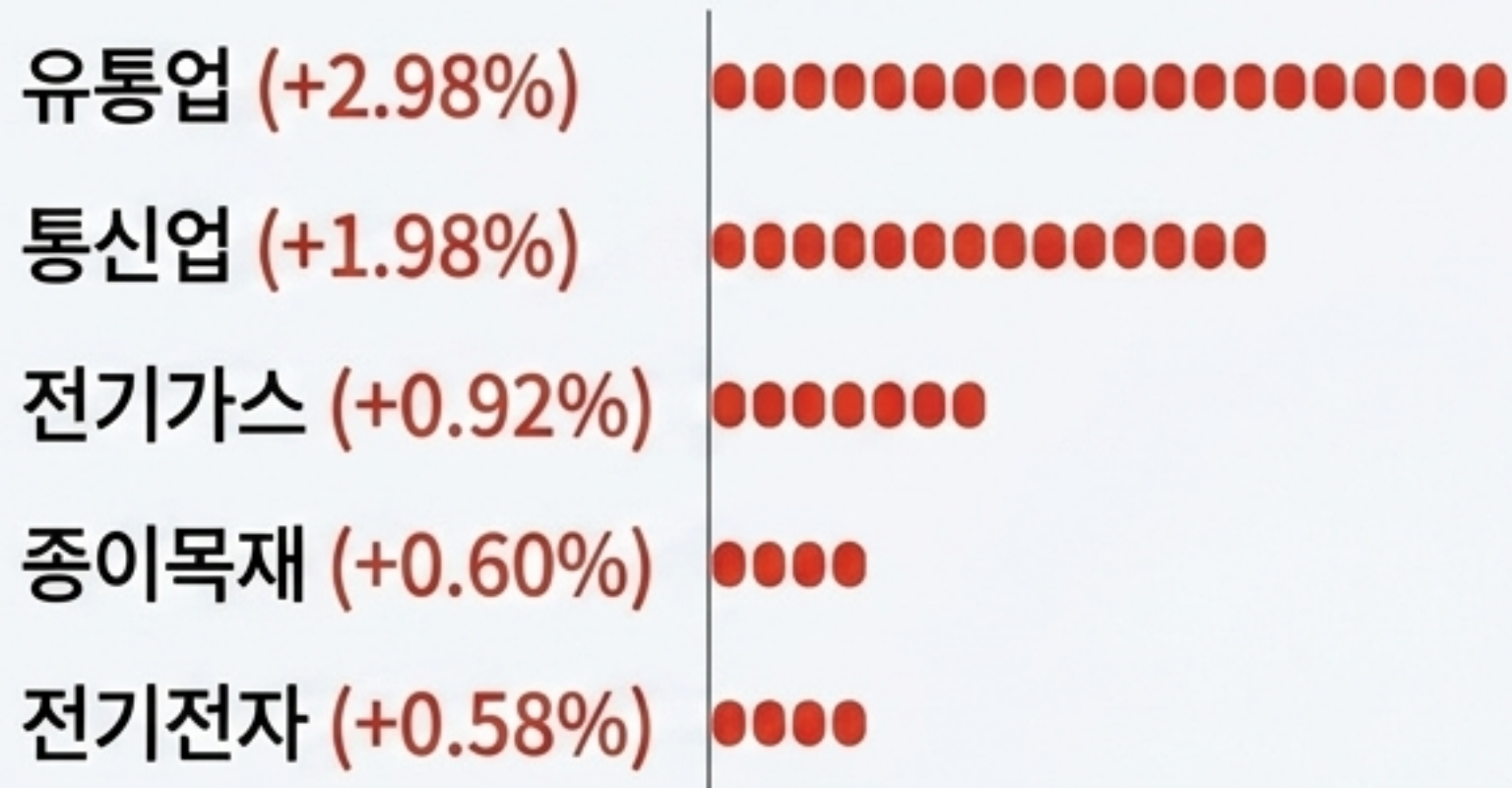
KOSPI는 대형주의 ‘자사주 매입’이라는 미시적 호재가 거시적 악재를 이겼으나, KOSDAQ은 매크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

KOSPI 시총 탑 티어: 반도체의 하드캐리 vs 이차전지의 소외



국내 산업별 명암: 전통적 방어주로의 자금 대피

The Winners (Top 5 강세)



The Losers (Bottom 5 약세)



금리 발작과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 전형적인 내수 방어주(유통, 통신, 전기가스)가 강세를 보였으며, PF 및 금리 민감도가 높은 건설/증권/보험 섹터는 직격탄을 맞음.

얼터너티브 자산의 랠리: 극대화된 안전 및 헷지 수요

디지털 골드 (Bitcoin)

가격: \$103,000 돌파 (+\$1,24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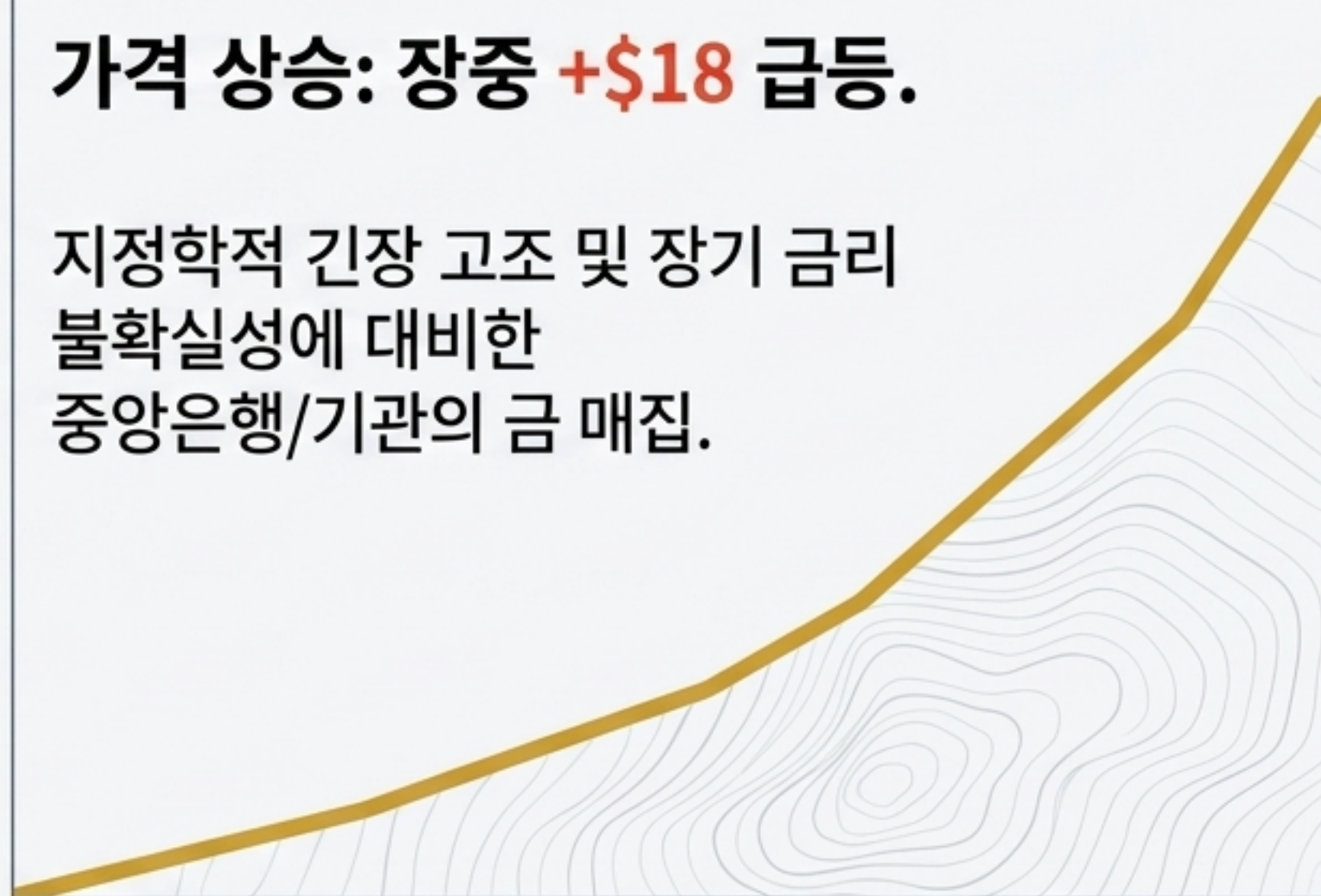
비트코인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
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순유입.



실물 안전자산 (Gold)

가격 상승: 장중 +\$18 급등.

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장기 금리
불확실성에 대비한
중앙은행/기관의 금 매집.



채권 마저 변동성에 노출되면서,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대체자산 비중 확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됨.

변동성 장세를 돌파하는 3대 핵심 액션 플랜

01

☑ 방어형 매수 (Defensive Buy)

KOSPI 6,800선 지지력이 확인됨. 삼성전자/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수혜주 및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중심의 단기 매수 포지션 구축.

02

☑ 리스크 관리 (Risk Management)

10년물 4.76% 돌파 및 유가 87달러 도달.
금리 압박에 취약한 KOSDAQ 중소형주 및 방향성 레버리지 ETF 비중 축소 요망.

03

☑ 테마 쏠림 대비 (Theme Concentration)

외화증권 순매수(467억 달러 유입) 동향을 추종.
매크로 둔화에도 구조적 성장이 확실한 AI(테크)와 금/비트코인 포지션 지속 유지.

지정학적 파고 속에서도 글로벌 유동성은
‘확실한 펀더멘털(AI)’과 ‘확고한 안전(금)’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.